

TV 드라마에 비친 간호사의 이미지

염영희¹⁾ · 김경희¹⁾ · 손희숙¹⁾ · 이정민²⁾ · 전재희³⁾ · 김명애²⁾

¹⁾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교수, ²⁾중앙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생, ³⁾세명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An Analysis of the Image of Nurses Portrayed on Korean TV Dramas

Yom, Young-Hee¹⁾ · Kim, Kyunghee¹⁾ · Son, Heesook¹⁾ · Lee, Jung Min²⁾ · Jeon, Jae-Hee³⁾ · Kim, Myoung Ae²⁾

¹⁾Professor, Red Cross College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²⁾Doctoral Student, Graduate School, Chung-Ang University

³⁾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emyung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image of nurses portrayed on Korean TV dramas. **Methods:** Among the medical dramas aired on TV from 2000 to 2013, sixteen different Korean TV dramas were selected. For analyzing the dramas, 'the checklist for monitoring media images of nurses and nursing' was used after obtaining the permission from the original author. Two evaluators evaluated each drama and synchronized the final scores after comparing individual scores. **Results:** The roles of nurses were found to be such a supportive role (93.8%), and a professional role (75.0%). The nurses images portrayed on the selected TV drama included being kind, accountable, having humanism (81.2%), and professional insights (56.2%), whereas nurses's administrative role such as a manager were not represented. A half of scenes that nurses showed up, nurses were asking asking for help to doctors or other hospital administrators. **Conclusion:** Since TV dramas on air in Korea still underrepresented the roles of the professional nurses, providing the media with advice to improve the images of nurses is necessary in future. Concrete and sustainable strategies for improving nurses image are required.

Key words: Nurses, Image, Television, Drama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이미지는 심리적인 표상으로 사람들의 건강관리를 포함한 인생의 다양한 관점에 영향을 준다[1-3]. Kalisch와 Kalisch[4]에 의하면, 간호사의 이미지는 사람들이 간호사 간호사에 대해 갖는 신념, 생각 및 인식의 표현이다.

대중매체는 대중의 태도와 행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대중매체는 이미지 형성에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

며 특히 여성, 노인 및 소수그룹에게는 진부하고 틀에 박힌 모습을 가중시킨다[5-9]. 이러한 대중매체에 반영된 이미지는 간호전문직에 대한 대중의 관점과 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10].

Kalisch와 Kalisch에 의해 1920~1980년대 소설, 영화, TV시리즈 및 출판물에 나타난 간호사와 의사의 이미지를 분석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의사는 간호사보다 더 중심적으로 묘사되었으며 간호사의 지적이고 합리적인 이미지는 의사에 비해 낮게 반영되었다. 특히 TV시리즈에 등장하는 간호사는 환자의 치료방향에 의사보다 도움이 적게

주요어: 간호사, 이미지, TV, 드라마

Corresponding author: Lee, Jung Min

Red Cross College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84 Heukseok-ro, Dongjak-gu, Seoul 06974, Korea.
Tel: 82-2-6299-2066, Fax: 82-2-6299-2069, E-mail: dlwjalds741@naver.com

* 본 연구는 2014년 병원간호사회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진행한 '간호사의 이미지에 대한 조사 연구'의 일부임.

투고일: 2015년 9월 1일 / 심사완료일: 2015년 10월 2일 / 게재확정일: 2015년 10월 21일

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9]. 2000년대 방영된 미국의 의학 드라마에서도 간호사는 주인공인 의사의 주변인물로 나타났으며 서로 상호 존경하거나 협력하는 관계가 아닌 의사에 종속적이거나, 성적인 존재로 그려지는 모습을 보였다[11]. 국내 드라마를 통해 간호사의 이미지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간호사는 의사의 주변적이고 덜 중심적인 인물로 묘사되었으며 전문직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보다는 의사의 보조적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었다[12,13].

부정적인 공공이미지는 간호사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잘못된 이미지는 간호사에 대한 잘못된 믿음과 기대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낳게 된다. 젊은 여성들이 남성의 영역이라고 불리는 직업군에 진출이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미지들은 간호사로 하여금 여성적이고 진부하다고 알려진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한정된 역할로 제한되도록 하기도 한다[14].

간호사가 환자에게 실제 의료현장에서 수행되고 있는 전문적인 업무 및 처치에 대하여 대중매체가 묘사하지 않으면 일반 대중은 간호사의 전문적 역할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반면 의사들은 대중매체에 의해 건강관련 긍정적인 결과의 거의 모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강화되어 왔다[9,15]. 간호사뿐만 아니라 전문직 집단들이 사회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대중의 인식이 필수 요건이 되어 온 이래, 대중들에 의해서 형성된 이미지는 정책 결정자로 하여금 간호직에 주어지는 전문적인 자원분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15,16]. 또한 간호사에 대한 부적절한 이미지는 대중뿐만 아니라 간호사들의 자아상, 자기 자신감, 믿음 및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15].

TV에 반영된 간호사의 이미지는 일반 사람들이 간호에 대해 갖는 첫 인상이며 또한 오래 지속된다. 하지만 간호사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TV에 반영된 간호사의 모습은 변화되고 있다. 2009년부터 최근 2015년까지 미국에서 간호사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들이 방영되었으며 의사를 보조하는 기존의 이미지에서 자율적인 전문직 여성으로 그려지기도 하였다[11]. 또한 2001년과 2004의 인터넷에서의 간호사 이미지를 분석한 연구에서, 30% 이상의 인터넷 사이트가 간호사는 지적이고 고학력의 소유자로 묘사되고 있으며 간호사의 학구적이고 독창적인 이미지는 증가한 반면 현신적이고 권위적인 이미지는 감소하였다[16]. 국내 대한간호협회가 2006년 한국갤

럽에 의뢰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명 중 8~9명이 간호사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이며,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고 환자 문제를 해결해 준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정직하고 믿음이 가능하며,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응답하였다[17]. 미국에서도 2014년 시행한 갤럽 조사에서 ‘정직, 도덕성면에서 가장 신뢰받는 전문직’으로 간호사가 선정되었다[18]. 이는 TV나 인터넷 등의 매체에서 나타나는 이미지가 대중에게 영향을 주는 동시에 대중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또한 매체에 드러나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대중매체를 통하여 나타나는 이미지가 대중에게 영향을 주고 그 시대의 간호사의 이미지를 대변하기도 하므로 대중매체에서 그려진 간호사의 이미지를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TV드라마에 나타난 간호사의 이미지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최근 드라마를 분석하지 못하였거나 간호사가 등장하는 드라마의 선택에 있어 제한적이었다. 대중매체는 대중들이 간호사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간호사가 등장하는 TV 드라마의 제작 시 실제 의료현장의 간호사의 모습을 왜곡 없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나타내는지 충분히 파악하여 이를 통해 올바른 간호 이미지 향상에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최근 방영된 TV 드라마를 통하여 반영되는 간호사의 이미지를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국내 간호사의 긍정적인 이미지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TV 드라마에 등장하는 간호사의 이미지를 분석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TV 드라마에서 간호사가 등장한 드라마를 확인한다.
- 2) TV 드라마에 비친 간호사의 등장 장소 및 업무를 분석한다.
- 3) TV 드라마에 비친 간호사의 이미지를 분석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TV 드라마에 비친 간호사의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간호사가 주요인물로 등장한 TV 드라마로 2000년대 병원을 배경으로 간호사가 미디어를 통해 나타나는 이미지를 포괄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2000년 1월에서 2013년 12월까지 TV에서 방영된 드라마를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팀은 TV 드라마에 나타난 간호사의 이미지를 분석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개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 단계에서 본 연구팀은 Kalisch 등[16], Kalisch와 Kalisch [19]가 개발한 간호사와 간호 행위에 대한 이미지 분석 체크리스트 사용을 원저자로부터 허가 받았다. 두 번째 단계에서, 원 체크리스트는 한국어로 번역을 하여, 연구자 6인의 패널토의를 통해 번역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였고, 총 4회의 토의를 거쳐 분석에 적절한 용어로 수정 및 보완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교수 2인에게 역번역을 받았다. 역번역된 도구는 영문학자에 의해 원 도구와 비교하여 도구의 동등성을 검증받았다. 네 번째 단계에서, 최종 체크리스트는 간호학교수 6인에 의해 내용 타당성을 검증받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도구의 분석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간호사 등장 장소 및 업무분석

장소별로 간호사의 간호업무 장면을 수술실/병동, 중환자실, 응급실/기타로 분류하였으며 기타에 해당되는 경우는 환자 이송을 위해 복도나 로비 등에 등장하는 경우를 포함하였다. 비업무의 경우 근무시간 내에 휴식하거나 잡담을 하는 등 간호중재를 시행하는 장면이 아닌 경우로 분류하였다.

2) 간호사의 이미지 분석

(1) 이야기에서의 중요성 및 인구학적 특성

간호사로 등장하는 인물을 ‘주인공/보조인물’로 구분하였으며 역할 비중에 따라 ‘주된역할/주변역할’로 구분하였다. 주된 역할은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이야기의 전개나 비중상 주요인물로 등장하는 경우로 그 외의 경우는 주변

역할로 구분하였다. 간호사가 자주 전문직으로 비추어지는지의 항목은 ‘자주/보통/전문직으로 비추어지지 않는다’로 구분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간호사 인물이 간호 고유의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업무를 시행하는 전문성을 얼마나 자주 나타내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간호사와 함께 등장하는 의료인을 ‘의사/병원관계자/간호조무사/기타’로 구분하여 이 중 간호사 외에 어떤 의료전문가가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지를 분석하였다. 인구학적 특성은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간호 분야에 진출함을 보여주는지 여부, 연령대의 다양성, 다양한 결혼형태가 나타났는지 여부에 따라 ‘그렇다/아니다’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2) 성격적인 특성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격적인 특성을 18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드라마 내에서 ‘나타남/나타나지 않음’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3) 주된 가치

간호사가 드라마 내에서 표현되는 가치는 ‘타인에게 봉사, 인본주의적 가치’, ‘학문적, 성취적 가치’항목으로 나누어 ‘예/아니오’로 분석하였다. ‘타인에게 봉사, 인본주의적 가치’는 장면별 등장인물이 인간의 가치를 주된 관심사로 갖는지 여부로 타인의 고통을 줄이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행동이나 마음가짐을 나타내었는지를 확인하였고, ‘학문적, 성취적 가치’는 간호사가 다른 의료진을 대상으로 직접 교육을 하거나 학회에 참여 하는 등 여부를 분석하였다. 학문적 가치가 나타난 경우 실제 임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거나 비정상적으로 보여지는지 여부에 따라 ‘그렇다/그렇지 않다’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4) 성적인 대상

간호사 인물이 성적인 대상으로 그려지거나, 비하하는 용어로 이용되거나, 지적이고 전문적인 능력이 아닌 외적인 면에 치중하지 여부에 따라 ‘그렇다/아니다’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5) 간호사의 역할, 전문적인 능력, 교육 및 행정

극 중 간호사의 역할에서 간호전문직이 매력있고 장기적인 직업으로 보여 지는지, 창조적이고 신나는 것으로 보여 지는지 여부에 따라 ‘그렇다/아니다’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전문적인 능력은 간호사가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자율적 판단을 하는지, 간호사 인물이 간호 제공시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보조적이라는 불필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환자 및 가족의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위협이나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지, 비정상적인 면을 보여주는지 여부에 따라 ‘그렇다/아니다’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교육 및 행정 부분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것을 보여주는지, 행정가나 매니저 등이 등장하는지, 위계구조를 보여주는지, 도움 요청 시 동료 간호사에게 부탁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인 C대학교의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1041078-201408-HR-114-01)를 받아 시행되었다.

2000년부터 2013년까지 공중파 및 케이블 채널에서 TV 드라마를 통한 간호사의 이미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2000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간호사가 등장한 국내 드라마 목록을 C대학 간호학과 교수 3명과 C대학 박사과정생 3명이 회의를 통하여 검토하여 드라마 전체적으로 나타난 간호사의 이미지를 포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간호사가 주요인물 이상으로 등장하는 드라마를 선정하였다. 케이블 방송은 최근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기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선택된 방영사는 공중파 3사(KBS, SBS 및 MBC)와 케이블 방송(TvN)이 포함되어 총 4개의 방송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간호사가 주요인물로 등장하는 경우는 의학 드라마뿐만 아니라 주요인물이 간호사인 일반 드라마와 시트콤인 경우도 포함되었다. 이는 의학드라마가 아니더라도 등장인물의 직업이 간호사인 경우 드라마 내에서 간호업무를 시행하는 모습이 나타나 대중으로 하여금 간호사의 이미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포함되었으며 그 결과 총 16개의 드라마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자료수집은 각 방송사 홈페이지의 ‘방송 다시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모든 등장장면 별 간호사의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자인 C대학의 박사과정생 3명은 병원 실무 경력 10년 이상 된 간호사로 본 연구의 이미지 분석틀의 모든 범주를 충분히 이해하였는지 6명의 연구자간에 검토하여 올바르게 분석되도록 훈련되었다. 분석자는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동일한 드라마 2편을 선정하여 분석틀에 따라 이야기에서의 중요성 및 인구학적 특성, 성격적 특성, 주된 가치, 성적인 대상 여부, 간호사의 역할 및 전문적인 능력,

교육 및 행정 항목으로 나누어 전회 분석한 후 장면과 코딩 방법을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전체 연구팀과 4차례 회의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1개의 드라마 속에 나타난 간호사의 장면들을 각각의 분석자가 독립적으로 분석하고 이 장면들에 부여된 간호사의 이미지를 백분율로 계산하여 하나의 드라마 내에서 그려진 전반적인 간호사의 이미지를 최종적으로 도출해 내었다. 사전 분석 결과 불일치한 부분을 검토 및 재시청하고 최종적으로 일치함을 합의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성격적인 특성 항목 중 ‘영향력이 있다’가 불일치하여 분석자의 분석 항목에 대한 이해를 다시 확인하고 논의를 통하여 불일치된 장면을 선별하여 재시청, 재분석, 재평가를 통해 동일한 결과가 합의되도록 하였다. 이에 사전분석 결과를 C대학 간호학과 교수 3명의 자문을 받아 도구사용이 적절하게 이용되어 동일한 결론에 이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 하나의 드라마 당 2명의 코더가 중복하여 볼 수 있도록 짝을 지어 분할하고 각각의 드라마를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동일한 드라마를 분석한 코더와 함께 재확인하고 등장 장면과 분석결과가 불일치한 부분을 회의를 통하여 확인하고 최종 합의하였다.

5. 자료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SPSS version 21.0 for window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TV 드라마에 비친 간호사의 이미지는 실수,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TV 드라마 목록분석

본 연구결과 미디어 분석 목록은 Table 1과 같다. 2000년부터 2013년 까지 한국의 대중매체에 나타난 간호사의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선택된 16개의 드라마를 분석하였으며 방영사별로 KBS 4건, MBC 8건, SBS 3건 TvN 1건 총 389회 분량이었다. 총 분석 장면은 모두 2955장면으로 드라마별 분석 장면은 평균 185장면이었다.

2. 간호사 등장장소 및 업무 분석

장소별로 간호사의 간호업무 장면을 분류 한 결과는 Table 2와 같으며 수술실이 407건(13.8%), 병동, 중환자

Table 1. Drama Lists for Analyses

(N=2,955)

No	Year	Subject	Broadcast	Number of times being	Number of scene
				broadcasted	analysis
				n (%)	n (%)
1	2000	Medical center	SBS	40 (10,4)	304 (10,3)
2	2005	Hello francesca III	MBC	52 (13,4)	145 (4,9)
3	2006	Thanks life	KBS	24 (6,2)	157 (5,3)
4	2007	White grand tower	MBC	20 (5,1)	160 (5,4)
5	2007	Surgeon Bongdalhee	SBS	18 (4,6)	134 (4,5)
6	2007	New heart	MBC	23 (5,9)	224 (7,6)
7	2008	General hospital 2	MBC	17 (4,4)	135 (4,5)
8	2008	Before & after plastic surgery	MBC	12 (3,1)	204 (6,9)
9	2009	Suns of Sol pharmacy	KBS	54 (13,9)	270 (9,1)
10	2010	Obstetrics	SBS	16 (4,1)	229 (7,7)
11	2011	Night hospital	MBC	10 (2,6)	59 (2,0)
12	2011	Brain	KBS	20 (5,1)	197 (6,7)
13	2012	Golden time	MBC	23 (5,9)	306 (10,4)
14	2012	The third hospital	tvN	20 (5,1)	108 (3,7)
15	2013	Good doctor	KBS	20 (5,1)	209 (7,1)
16	2013	Medical top team	MBC	20 (5,1)	114 (3,9)
Total				389 (100)	2955 (100)

Table 2. Places and Scopes of Work of Nurses on TV Drama

(N=2,955)

Work scope	Scene	n (%)
Work	Operating room	407 (13,8)
	Ward, Intensive care unit, Emergency room	1,522 (51,5)
	Others	394 (13,3)
Non-Work		632 (21,4)
Total		2,955 (100)

실, 응급실이 1522건(51.5%), 기타(복도, 병원 로비, 계단, 회의실 등)는 394건(13.3%)으로 나타났다. 업무활동 외에 간호사 등장 장면이 비업무에 해당하는 건수가 632건(21.4%)이었다.

3. 간호사의 이미지 측정 결과

1) 이야기에서의 중요성 및 인구학적 성격적 특성

이야기에서의 중요성, 인구학적 특성 및 성격적 특성은 Table 3과 같다.

16개 드라마를 통하여 나타난 간호사의 역할은 15편(93.8%)의 드라마에서는 보조인물로, 1편(6.2%)의 드라마

에서 주인공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사의 인물이 주된 역할인 드라마는 2편(12.5%), 주변역할이 14편(87.5%)이었다. 간호사의 인물이 자주 전문직으로 비추어 지는 드라마는 4편(25.0%), 보통 전문직으로 비추어지는 드라마가 8편(50.0%), 전문직으로 보여 지지 않는 경우가 4편(25.0%)이었으며 실제의 간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드라마가 9편(56.2%),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경우가 7편(43.8%)이었다. 드라마 내에 다른 의료전문가가 등장하는 장면에서 누가 가장 말을 잘 하는가를 평가한 결과 16편(100%) 모두 간호사가 아닌 의사로 분석되었다. 간호사의 성격적 특성은 '따뜻하고 친절하다'가 15편(93.8%)의 드라마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책임감

Table 3. Prominence in the Plot, Demographics and Personality Traits

(N=16)

Variables	Categories	n (%)
Prominence in the Plot		
Is the nurse in a leading role or a supportive role?	Leading role	1 (6.2)
	Supportive role	15 (93.8)
Is the nurse actively participating or shown in the background (handing instruments, carrying trays, pushing wheel chairs)?	Actively participating	2 (12.5)
	Shown in the background	14 (87.5)
To what extent are nurses shown in professional roles, engaged in nursing practice?	Often looks professional,	4 (25.0)
	Usually looks professional,	8 (50.0)
	Not seen as the professional.	4 (25.0)
Is the nurse provides the actual nursing care?	Yes	9 (56.2)
	No	7 (43.8)
In scenes with MDs or hospital administrators who does the talking?	MDs	16 (100)
	Hospital administrators	0 (0)
	Nurse's aide	0 (0)
	Others	0 (0)
Demographics		
Does the portrayal reflect men as well as women in nurses' roles?	Yes	4 (25.0)
	No	12 (75.0)
Are nurses shown to be of varying ages?	Yes	9 (56.2)
	No	7 (43.8)
Are nurses shown to be of varying marital status?	Yes	5 (31.2)
	No	11 (68.8)
Characteristics		
Intelligent	Present	8 (50.0)
	Not present	8 (50.0)
Respected	Present	7 (43.8)
	Not present	9 (56.2)
Autonomous	Present	9 (56.2)
	Not present	7 (43.8)
Warm/compassionate	Present	15 (93.8)
	Not present	1 (6.2)
Educated	Present	7 (43.8)
	Not present	9 (56.2)
Accountable	Present	13 (81.2)
	Not present	3 (18.8)
Trustworthy	Present	12 (75.0)
	Not present	4 (25.0)
Diverse	Present	8 (50.0)
	Not present	8 (50.0)
Cool/"with it"	Present	4 (25.0)
	Not present	12 (75.0)
Attractive/well groomed	Present	11 (68.8)
	Not present	5 (31.2)
Competent	Present	10 (62.5)
	Not present	6 (37.5)
Sexually promiscuous	Present	1 (6.2)
	Not present	15 (93.8)
Committed	Present	12 (75.5)
	Not present	4 (25.0)
Creative/innovative	Present	6 (37.5)
	Not present	10 (62.5)
Powerful	Present	6 (37.5)
	Not present	10 (62.5)
Scientific	Present	4 (25.0)
	Not present	12 (75.0)
Authoritative	Present	4 (25.0)
	Not present	12 (75.0)
When nurses exhibit the above personality traits, do such portrayals show them to be abnormal in some way	Yes	9 (56.2)
	No	7 (43.8)

MDs=Medical doctors.

있다'가 13편(81.2%)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성적으로 문란하다'의 항목이 1편(6.2%)으로 대부분의 드라마에서 나타나지 않아 가장 낮은 비율로 묘사된 성격으로 분석되었다. 간호사의 성격적 특성이 대체적으로 정상적으로 그려진 드라마가 7편(43.8%)이었으며 어떤 면에서는 비정상적으로 나타난 드라마가 9편(56.2%)으로 나타났다.

2) 주된 가치 및 성적인 대상 여부

주된 가치 및 성적인 대상 여부는 Table 4와 같다. 총 16편의 드라마에서 13편(81.2%)은 주된 가치로 타인에게 봉사, 인본주의적 가치를 표현하였으며 4편(25.0%)에서는 주로 학문적, 성취적 가치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된 가치를 학문적, 성취적 가치로 그려진 4편의 드라마 중 3편은 주로 왜곡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그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총 16편의 드라마를 통하여 나타난 간호사 성격 특성 중 성적인 대상으로 나타난 드라마는 2편(12.5%)이었으며 성적으로 비하하는 용어로 간호사가 이용되는 경우는 없었다. 지적이고 전문적 능력 보다 외형적으로만 매력적인 인물로 그려진 경우는 4편(25.0%)으로 나타났다.

3) 간호사의 역할, 전문적인 능력, 교육 및 행정

간호사의 역할, 전문적인 능력, 교육 및 행정부분에 대한 분석은 Table 5와 같다. 간호사의 역할을 분석한 결과, 16편의 드라마 중 간호직이 매력 있고 장기적인 직업으로

묘사된 드라마가 11편(68.8%)이었으며 창조적이고 신나는 역할로 나타난 경우는 9편(56.2%)이었다.

전문적인 능력 항목에서 9편(56.2%)가 전문가적인 의견을 갖고 자율적인 판단을 하는 것으로 그려졌으며 간호 제공시 보조적이라는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5편(31.2%)에 해당 되었다. 총 16개의 드라마에서 대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을 가하지 않고(93.8%) 환자 가족의 안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93.8%)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문적인 능력과 관련되어 나오는 장면에서, 간호사가 어떤 면에서 비정상적으로 그려진 것으로 분석되었던 드라마는 10편(62.5%)이었다.

교육 및 행정 부분에서 간호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것으로 그려진 경우가 10편(62.5%)이었으며 10편(62.5%)에서는 간호 행정가나 매니저가 등장하지 않았다. 간호관리의 위계구조를 보여주는 경우가 8편(50.0%)이었으며 나머지 8편(50.0%)에서는 의사나 병원 관계자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특히 도움이 필요할 때 간호사는 의사나 다른 인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13편(81.2%)으로 높게 나타났다.

IV. 논 의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된 드라마는 2000년부터 2013년까지 16개의 드라마였으며 대부분 병원을 배경으로 하

Table 4. Primary Values and Sex Objects

(N=16)

Variables	Categories	n (%)
Primary Values		
Do the nurses exhibit values for service to others, humanism, scholarship, achievement?		
Humanism	Yes	13 (81.2)
	No	3 (18.8)
Scholarship, Achievement	Yes	4 (25.0)
	No	12 (75.0)
When nurses exhibit scholarship and achievement, do such portrayal show them to be abnormal in some way?	Yes, such portrayal show them to be abnormal in some way.	1 (6.2)
	No, it seems to be normal.	3 (18.8)
Sex Objects		
Are nurses portrayed as sex objects?	Yes	2 (12.5)
	No	14 (87.5)
Are nurses referred to in sexually demeaning terms?	Yes	0 (0)
	No	16 (100)
Are nurses presented as appealing because of their physical attractiveness rather than their intellectual capacity, professional commitment, or skill?	Yes	4 (25.0)
	No	12 (75.0)

Table 5. Career Orientation, Professional Competence, Education and Administration

Variables	Categories	n (%)
Career Orientation		
Is the profession of nursing shown to be an attractive and fulfilling long-term career?	Yes	11 (68.8)
	No	5 (31.2)
Is the work of the nurse shown to be creative and exciting?	Yes	9 (56.2)
	No	7 (43.8)
Professional Competence		
Do nurses exhibit autonomous judgment in professional matters?	Yes	9 (56.2)
	No	7 (43.8)
Is there a gratuitous message that a nurse's role in health care is a supportive, rather than central one?	Yes	5 (31.2)
	No	11 (68.8)
Do nurses have a positive impact on patient/family welfare?	Yes	15 (93.8)
	No	1 (6.2)
Are nurses shown harming or acting to the detriment of patients?	Yes	1 (6.2)
	No	15 (93.8)
When nurses exhibit professional competence, are they shown to be abnormal in some way?	Yes	10 (62.5)
	No	6 (37.5)
Education		
Is there evidence that the practice of nursing requires special knowledge and skills?	Yes	10 (62.5)
	No	6 (37.5)
Administration		
Are any roles filled by nurse administrators or managers or are all nurses shown as staff nurses or students?	Yes, Any roles filled by nurse administrators or managers,	6 (37.5)
	No, all nurses shown as staff nurses or students,	10 (62.5)
Is there evidence of an administrative hierarchy in nursing or are nurses shown answering to physicians or hospital administrator?	There is evidence of an administrative hierarchy in nursing.	8 (50.0)
	Nurses are shown answering to physicians or hospital administrator.	8 (50.0)
Are nurses shown turning to other nurses for assistance or are they depicted as relying on a physician or other character (generally male) for guidance, strength, and/or rescue?	Nurses are shown turning to other nurses for assistance for guidance, strength, and/or rescue.	3 (18.8)
	They depicted as relying on a physician or other character for guidance, strength, and/or rescue.	13 (81.2)

는 의학드라마에 해당되었지만 일부의 드라마는 병원이 주 배경이 아닌 경우도 있었다. 이들 드라마는 주요인물로 설정된 간호사의 직업적 특성을 묘사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병원에서 일어나는 전문적인 모습을 보여주기에 제한이 있었다. 반면에, 2010년부터 최근 5년간 방영된 드라마 중 간호사가 주요인물로 등장한 드라마는 모두 병원

을 배경으로 하는 의학드라마였다. 따라서 대중매체 속에 등장하는 간호사의 전문직 이미지를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 결과 드라마에서 간호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장면은 병동, 중환자실 및 응급실이 51.5%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드라마에서 극적인 요소

를 가미하기 위해 응급실, 중환자실을 배경으로 한 일부 상황을 제외하면, 간호사가 등장하는 장면은 주로 병동의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의사, 간호사, 환자 또는 보호자와 주고받는 대화였다. 최근 5년간 한국의학드라마에 나타난 간호사 이미지와 역할을 분석한 Kim 등[13]의 연구에서도 간호사가 등장하는 장소는 ‘간호사 스테이션’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Kalisch 등[16]은 인터넷에서 간호사는 고학력의 소유자로 지적적이고 책임감이 있으며 존경과 신뢰받는 능력 있는 전문직으로 묘사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2014년 미국의 갤럽조사에서도 간호직은 2001년 한해를 제외하고 1999년부터 2014년까지 가장 정직하고 윤리적인 전문직으로 선정되었다[18]. Korean Nurses Association이 한국 갤럽에 의뢰하여 19세 이상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조사에서도 10명 중 9명이 ‘간호사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전문직’이라고 응답하였다[17].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는 아직까지도 국내의 대중매체에서는 일반 대중들에게 능력과 역량을 겸비한 전문직 간호사가 적극적인 태도로 능동적으로 활약하는 모습보다는 다소 정적이고 수동적인 간호사의 모습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한 장면은 수술실(13.8%)로 이는 의학드라마에서 주인공인 의사의 전공과가 신경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응급외과 및 성형외과 등 외과계열이었다는 사실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 TV 의학드라마에 등장하는 의사 캐릭터를 유형화 하고 그 변화양상을 추적하여 의학드라마의 변천을 모색한 Hwang [20]의 연구에서도 의학드라마에서 주인공 역할을 맡은 의사의 대부분이 외과계 이었으며 의학드라마가 아닌 경우에도 드라마에서 극적인 요소를 가미하기 위해 수술 장면이 많이 나타나므로 간호사가 등장하는 장면에서 수술실이 배경이 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기타 간호사가 등장하는 장소는 병원 로비, 복도, 병원 식당, 회의실, 정원 및 계단 등이었으며 이러한 장소에서 간호사가 주요인물로 등장하는 경우에는 교육, 회의, 환자에 대한 의논을 하는 장면으로 묘사되었다. 그러나 주요인물이 아닌 경우에는 환자이동, 검체 및 서류를 운반하는 배경인물로 표현되어 실제 전문직 간호사의 역할과는 차이가 있었다. Kim 등[13]의 연구에서도 간호사가 모여서 잡담을 하거나 차트를 들고 복도를 걸어가는 장면 등으로 표현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들어 의학드라마 내에서 간호사의 비중이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경우 조연이나 일회성의 보조인물로

등장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인 것으로 간주된다.

드라마에서 간호사가 등장하는 배역의 업무를 간호업무와 비간호업무로 분석한 결과 간호업무가 78.6% 이었고, 비간호업무는 21.4%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직업인식이 대부분 전문적인 능력을 수행하는 간호업무로 일반대중들에게도 인식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드라마 내에서 간호사 역할의 인물의 중요성을 분석한 결과, 드라마에 등장하는 간호사는 거의 대부분 보조인물로 그려졌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까지 한국 의학드라마에서 주연은 의사로 고정되어 있으며, 간호사가 주연으로 나오는 경우는 전무하고 조연 또는 일회성의 주변 인물이었다고 보고한 Kim 등[13]의 연구와 드라마에서 간호사의 역할비중은 78.4%가 주변인물이라고 보고한 연구[12]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드라마에서 간호사가 전문직으로 보여 지는지를 분석한 결과 주사, 채혈 및 활력징후 측정 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응급상황에서 환자상태를 파악하고 동시에 의료진과 상호 협조하면서 독자적인 간호업무를 시행하는 장면 등 드라마의 75.0%에서 전문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Kalisch와 Kalisch[4,14]가 시대 별로 간호사의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1983년 이후부터는 전문가로 구분된 연구결과에 의해서도 지지되었다.

그러나 실제 간호의 모습을 그렸는가를 분석하였을 때 그렇지 못한 경우가 43.8%이었다.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직업 인식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전문적인 능력에 대한 실제 간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아직 많았다. 일부 드라마에서 간호사가 환자의 응급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감정적으로만 대처하는 등 임상간호실무 현장에서 간호사의 주요역할과 드라마 상에서 보여지는 역할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 및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간호교육 부분을 의사에 비해 비중있게 다루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실제적으로 임상간호실무 현장에서 간호사는 환자 및 보호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종의 의료요원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환자의 요구와 선호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환자 우선의 전문직 간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21].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방영되는 드라마에서는 간호사의 전문직 업무를 보여주기 보다는 의사의 보조적 역할로 묘사되는 상황이 많았다. 이와 같이 드라마에서 간호사로 등장하는 인물이 임상간호실무현장에서 전문직 업무

를 수행하는 실제적인 간호사의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드라마의 배경과 간호사로 등장하는 인물의 배역에 따른 한계로 제한이 있었다.

드라마에서 남자 간호사도 간호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경우는 25.0%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간호학과 재학생 중 남학생의 비율이 2003년 3.2%에서 2011년 13.0%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남자 간호사의 증가도 2005년부터 두드러져 2012년 남자간호사는 총 5,183명으로 전체간호사의 1.8%에 이른다[22]. 이러한 사회적 직업구조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남자 간호사의 간호분야 진출 가능성도 알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종합병원2>에서 남성으로 간호사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응급실 남자 간호사의 등장인물은 여성 직업이라는 사회적 고정관념을 탈피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대부분의 간호사의 성격적 특성이 ‘따뜻하고 친절하다’로 나타났다(93.8%). 드라마에 나오는 간호사의 이미지를 분석한 Kim 등[13]의 연구에서도 ‘상냥한’ 성격이 40.0%, ‘권위적인’ 성격이 10.0%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Im[12]의 연구에서는 ‘상냥하다’가 24.2%[13], ‘권위적이다’는 36.6%[14]였다. Kalisch 등[16]은 2001년과 2004년 인터넷에서의 간호사의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4년 동안 간호사의 학구적이고 독창적인 이미지는 증가한 반면 현신적, 권위적 이미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중매체에 반영된 이미지는 간호전문직에 대한 대중의 관점과 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10]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드라마에 나타나는 간호사 성격적 특성의 이와 같은 변화는 간호의 패러다임이 환자의 요구와 선호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환자중심모형으로 변화하면서 환자의 관점에서 간호경험을 중시[23]하는 현실적인 상황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16편의 드라마 중 13편의 드라마에서 간호사는 ‘타인에게 봉사’ 및 ‘인본주의적 가치’를 묘사하였다. 간호실무 철학은 대상자의 건강문제에 초점을 둔 치료철학, 총체성을 가지는 인간 개인으로서 대상자에게 초점을 둔 돌봄철학 및 대상자가 처한 임상 상황에 초점을 둔 전문직철학으로 구성된다[24]. 이러한 간호실무 철학을 배경으로 간호사는 임상간호실무 현장에서 총체론적 관점에서 인본주의에 입각하여 대상자의 개별성 및 총체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이타적인 간호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는 간호의 철학적 배경에 따른 간호사의 주된 가치가 대중매체에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학문적·성취적 가치’는 4편의 드라마에서 표현되었다. 실제 임상간호실무 현장에서는 간호사가 간호실무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지식을 습득하여, 이를 근거로 대상자에게 보다 질적인 간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간호사 대상의 보수교육 및 직무교육 등의 계속교육을 시행하고 있다[22]. 일부 드라마에서 간호사 대상의 교육 또는 학회 참석 등의 장면을 보여주었지만, 간호사의 임상전문성 개발을 위한 학문적·성취적 가치의 수준을 보여주기는 매우 미흡하였다.

‘성적인 대상’ 측면에서 16편의 드라마 중에서 2편의 드라마를 제외하고 간호사를 성적인 대상으로 표현한 드라마는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간호전문직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점과 태도가 대중매체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간호사 이미지가 1966년부터 1982년까지는 성적 대상이었다가 1983년 이후부터는 전문가로 구분되었다고 보고한 Kalisch와 Kalisch[4,14]의 연구, 간호사가 정직하고 윤리적인 전문직 1위로 선정된 2014년 미국의 갤럽조사[18], 19세 이상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9명이 ‘간호사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전문직’이라고 응답한 Korean Nurses Association의 간호사 이미지조사[17] 등은 본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을 지지해준다.

‘간호사의 역할 및 전문적인 능력’에서 본 연구의 자료 분석 결과, 16편의 드라마 중 11편의 드라마에서 간호전문직이 매력 있고 장기적인 직업으로 묘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의 드라마에서 간호사는 의사에 비해 전문적 능력과 역량을 나타낼 수 있는 장면이 거의 없었다. 이는 의학드라마 제작 시 임상상황을 실제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이나 자문이 부족하고, 주인공인 의사의 역할에만 집중하여 조연이나 보조인물로 등장하는 간호사의 배역에 따른 제한으로 간호의 전문영역이 적절히 묘사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드라마의 경우, Kim 등[13]과 Im[12]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중매체에 비친 간호사는 의사보다 덜 중심적인 인물로 지속적으로 묘사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간호사로 등장하는 인물이 임상간호실무 현장에서 전문직 업무를 수행하는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의학드라마 배경의 한계성과 간호사로 등장하는 인물의 배역에 따른 제한성은 간호사의 실제적인 모습을 그려내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교육 및 행정’ 부분에서 16편의 드라마 중 10편의 드라

마에서 간호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전문직 간호사는 이론적 지식에 근거한 간호실무를 실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22]. 따라서 전문적 지식과 이에 근거한 숙련된 기술을 겸비하여야 한다. 일부 드라마에서는 선임간호사의 교육, 심폐소생술 교육, 병동별 회의 등에서 교육적인 장면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국내에서 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임상에서 프리셉터 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25] 분석된 16개의 드라마 모두에서 프리셉터 교육이 나타나지 않았다. 모든 드라마에서 간호학생이 등장하지 않았으며 5편의 드라마에서는 간호교육 장면이 전혀 표현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일반 대중들이 전문직 간호사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서 대중매체에서 임상간호실무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간호전문직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TV드라마에 비친 간호사의 이미지를 분석하여 대중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중매체에 비치는 간호사의 이미지를 조사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TV 드라마에 비친 간호사는 대부분 주인공이 아닌 주변역할로 묘사되었다. 간호사는 따뜻하고, 친절하고, 책임감이 높으며 전문가적 식견을 가진 인물로 비추어졌으며 타인에게 봉사하는 인본주의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TV 드라마는 간호사의 직업적 특성을 묘사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간호사의 모습을 보여주기에 다소 제한이 있었다. 대중매체에서 비추어지는 간호사의 이미지는 대중들의 간호사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TV에 비추어지는 간호사의 모습에 따라 사람들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할 수 있다. 부정확한 간호의 이미지는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사에 대한 명성을 저해한다[26]. 따라서 간호사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TV 드라마를 포함한 대중매체에 병원이나 간호 현장에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모습이 반영되어야 한다. 즉, 직접적인 환자 사정 및 기록, 설명 및 교육, 투약 및 주사, 응급처치 등의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본 연구는 최근 14년 동안 TV 드라마에 반영된 간호사의 이미지를 총체적으로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를 둔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간호사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인터넷에 반영된 간호사의 이미지를 분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나아가 간호사가 등장하는 다양한 대중매체에서 의학드라마 자문제공 등 간호사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전략 개발과 실행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1. King DL. Conditioning, an image approach. 1st ed. New York: Halsted Press; 1979. p. 1-456.
2. Nicholas JM. Images, perception, and knowledge. 1st ed. Boston: D. Reidel Publishing Company; 1977. p. 1-309.
3. Shorr JE, Sobel GE, Robin P, Connella JA, editors. Imagery: Its many dimensions and applications. 1st ed. New York: New York Plenum; 1980. p. 1-412.
4. Kalisch BJ, Kalisch PA. Communicating clinical nursing issues through the newspaper. *Nursing Reserch*. 1981;30(3): 132-138.
<http://dx.doi.org/10.1097/00006199-198105000-00002>
5. Molly H. From Reverence to Rape: The treatment of women in the movies. 2nd ed. New York: Penguin; 1974. p. 1-388.
6. Stoddard KM. The image of the aging woman in American popular film, 1930-1980. 2nd ed. Maryland: University of Maryland; 1980. p. 1-258.
7. Meyer TP. Impact of 'all in the family' on children.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1976;20(1):23-33.
<http://dx.doi.org/10.1080/08838157609386372>
8. Pettit AG. Images of the Mexican American in fiction and film. 1st ed. Texas: Texas A&M University Press; 1980. p. 1-282.
9. Kalisch PA, Kalisch BJ. A comparative analysis of nurse and physician characters in the entertainment media.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986;11(2):179-195.
<http://dx.doi.org/10.1111/j.1365-2648.1986.tb01236.x>
10. Black BP. Professional nursing: Concepts & challenges. Philadelphia: Saunders; 2013.
11. Spear HJ. TV nurses: Promoting a positive image of nursing?. *Journal of Christian Nursing*. 2010;27(4):318-321.
<http://dx.doi.org/10.1097/cnj.0b013e3181ed9f1a>
12. Im ML. Research on contents analysis on image of nursing on television drama [master's thesis].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1996. p. 1-57.
13. Kim JE, Jung HJ, Kim HN, Son SY, An SK, Kim SB, et al. The Image of nurses and their clinical role portrayed in Korean medical TV dramas in recent 5 years.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2013;10(2):120-132.
14. Kalisch BJ, Kalisch PA. Anatomy of the image of the nurse: Dissonant and ideal models. *American Nurses Association*

- Publications, 1983:3-23.
15. Kalisch BJ, Kalisch PA. Improving the image of nursing. *The American Journal of Nursing*. 1983;83(1):48-51.
<http://dx.doi.org/10.1097/00000446-198301000-00018>
 16. Kalisch BJ, Begeny S, Neumann S. The image of the nurse on the internet. *Nursing Outlook*. 2007;55(4):182-188.
<http://dx.doi.org/10.1016/j.outlook.2006.09.002>
 17. Chung KS. Poll of nursing association nurse image of Korea gallup. *The Korea Nurses Association News*. 2006 Oct 11; Sect.12.
 18. Riffkin R. Americans rate nurses highest on honesty, ethical standards [internet]. Washington: Gallup; 2014[cited 2014 December 18]. Available from:
<http://www.gallup.com/poll/180260/americans-rate-nurses-highest-honesty-ethical-standards.aspx>
 19. Kalisch P, Kalisch B. *The changing image of the nurse*. 1st ed. Michigan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87. p. 1-259.
 20. Hwang YM. A study on the changes in the types of doctor characters illustrated in Korean TV medical dramas.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2011;5:247-280.
 21. Kim YH, Jung YS, Lee SH, Kim KO, Jeong YN, Jung HR, et al.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learning program for oncology unit-based core nursing practice outcomes based cancer patients pain management learning program. *Asian Oncology Nursing*. 2013;13(4):231-239.
<http://dx.doi.org/10.5388/aon.2013.13.4.231>
 22. Chung KS. Age of 5,000 male nurses. *The Korea Nurses Association News*. 2012 May 8;Sect.01.
 23. Small DC, Small RM. Patients first: Engaging the hearts and minds of nurses with a patient-centered practice model. *The Online Journal of Issues in Nursing*. 2011;16(2):2.
<http://dx.doi.org/10.3912/OJIN.Vol16No02Man02>
 24. Kim HS. *The nature of theoretical thinking in nursing*. 3th ed. NewYork : Springer Publishing Company; 2010. p. 1-305.
 25. Ryoo EN, SONG HS, Jang EH, Seo HS, Choo YH, Kim IS, et al. A study on clinical performance and job satisfaction by preceptor experience. *The Chung-Ang Journal of Nursing*. 2001;5(2):1-12.
 26. McAllister M, Downer T, Hanson J, Oprescu F. Transformers: Changing the face of nursing and midwifery in the media. *Nurse Education in Practice*. 2014;14(2):148-153.
<http://dx.doi.org/10.1016/j.nepr.2013.07.011>